



불교, 정말 어려운가

흔히들, 불교는 어렵다고 말한다. 학식의 낮고 높음,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정말 그럴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불교는 다경전 다방면의 종교다. 장경의 바다는 넓고도 깊고,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이렇게 말한다. 불법 혹은 도는, '세수하다 코 만지거나'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다.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타력의 종교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 자기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언필칭 '해탈'의 종교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어려움을 왜 그렇게들 쉽게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

이런 문제 의식을 공개적 토론의 마당으로 펼친 단체가 있다. '불교는 어렵다?'를 주제로 인트라넷 생명공동체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것이다. 그때 오간 얘기들의 몇 토막을 여기에 전한다.

"불교는 원래 쉬운데 환경과 조건들로 어렵게 됐다. 초기경전의 경우, 얼마나 소박하고 쉬운가." (이정호, 인도라마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쉽다는 개념은 다층적이다. 지금 불교 언어는 건조한 언어쯤으로 읽고 있다. '수행의 불교'로 읽힐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김관동, 조계종 포교연구실)

"불교가 쉬워질 수 있는 대안은 경전의 재검집 또는 재해석이다." (김광하, 경실련 상임운영위원)

"앞뒤 말을 얹고 인용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 전적으로 기자의 몫을 밝히며, 허락없이 인용한 점, 토론회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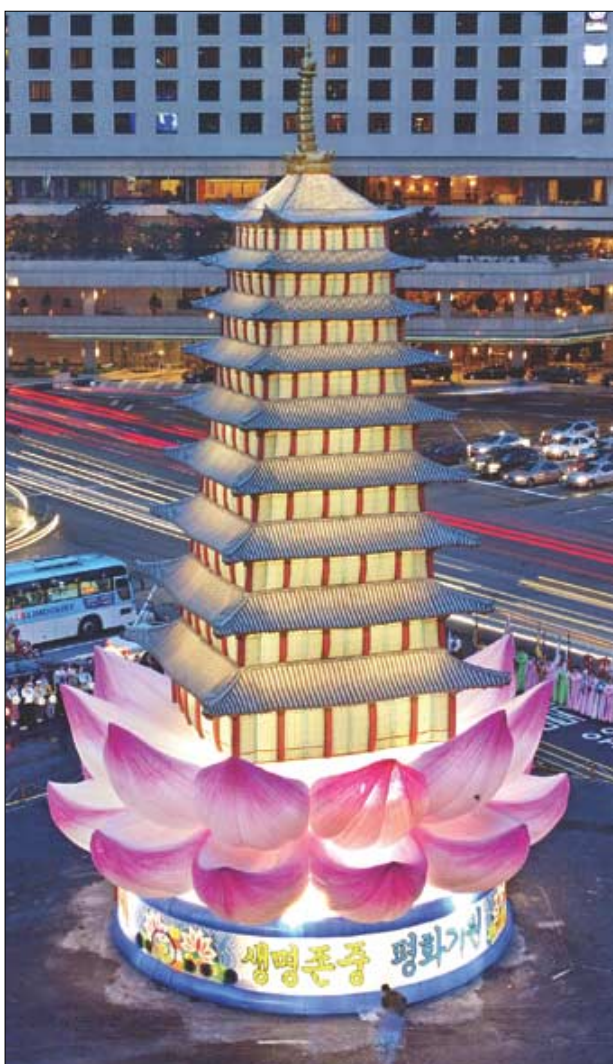
역시 문제는 쉽다. 삶과 유리된 불교는 관념적 유희다.

"불교는 있는데 불자는 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바꿔 나가야만 한다.

윤재학 기자

봉축행사 '세계인의 축제'

일본·태국·대만 사절단, 외국인 근로자 등 대거참여



◀시청앞에 세워진 봉축 탑등. 15m 높이의 이 탑등은 연꽃 위에 세운 향룡사9층 목탑 양식으로, 세계 평화와 생명 존중의 염원을 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지구촌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연등축제에는 태국이 정부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어느 해보다 외국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태국은 국가차원에서 200여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단을 구성해 올 봉축행사에 참석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 동남아 7-8개국의 노동자들은 민속공연과 제등행진 참여하며, 국제봉사단체인 '붓다워크캠프'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도 올 연등축제에 동참한다. 또 30여 개국의 외국대사가

태국왕실마차와 같은 장엄물 제등행진
대만 불광사 동화무용단 문화공연
국제 봉사단체 붓다워크캠프 축제 동참

태국은 연등축제기간에 자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태국왕실에서 사용하는 마차와 똑같은 장엄물로 제등행렬에 참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국제적인 등축제로 승화시킨다.

주한태국대사 인다부 4인 작년부터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시작한 대만은 올해 '불광사 동화무용단'이 참가, 문화마당 공연과 제등행진에서 대만불교 문화를 선보인다. 일본은 한일 문화교류협회 차원에서 100여명의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종단 대표들도 제등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하며, 주한 외국인인과 외국인 관광객 참가자도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연등축제는 이제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외국인 등만들기' 프로그램은 선보인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외국인 수는 매년 20% 이상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5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유일의 불교 축제가 됐다. 지난해 연등축제 참가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수는 전체의 20%였다.

한명우 기자

각해 전 진각종 총인 열반

23일 총인원서 종단장으로 고결식



진 각해 전 총인 각해 대종사 21일 오전 6시 40분 서울 기로원에 서 열반했다. 세수 78세, 법랍 50년.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종단장으로 열린 고결식(영결식)에는 예

일 총인, 도영 조계종 포교원장,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김기재 민주당 연등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 대종사는 "종단이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바른 길을 제시했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율령 정진하여 진각종풍을 진작시켜 나가겠다"고 애도했다.

다비석은 자리를 옮겨 경기도 양주 벽제 다비장에서 치러졌다.

관련기사 3편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도로' 노선재검토위 구성

조계종, 이태식 위원장 교체 요구

조계종 공대위와 건설교통부가 22일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 인선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이태식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위원장)가 위촉됐고, 조계종 공대위 위원(간사: 조계종 사회과장 김명주)으로는 최주영(도시계획, 대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동종인(환경·대기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성동(도로공학, 한국도로기술 대표이사), 조승현(환경경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경순(역사문화,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씨 등이 선정됐다.

건교부측 위원(간사: 민자도로과장 장영수)으로는 김대하(도로, 동일기술공사대표), 박석성(교통, 유신코퍼레이션 전무), 이한준(경계,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순천(환경·생태, 동양기술공사 상무), 조인철(역사문화, 경산대 전임교수) 씨가 내정됐다.

한편 조계종 공대위와 건설교통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선재검토위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세부운영 세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조계종은 23일 이태식 위원장의 교체를 공식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dnam@buddhapia.com

문화재청 차관청승격 법안

6월 임시국회서 심의키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위한 국회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난·재해 관리체제를 통합해 재난관리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 6월경 제출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행자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여부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재난

관리청 신설과 함께 우선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인 만큼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품 꽃꽂이 으뜸-
(특수대, 전통공예, 꽃꽂이 전문자, 전통문화·문화·예술·문화)
011-541-7769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6개 단체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찰 기부 외압 의혹과 관련, 23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사의 참뜻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스스로 밝혀주지 않으면 사건이 해당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책임한 폭로식 수사 행위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일체의 시주 및 정당한 화주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남기 씨를 구속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불교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이 사건은 수행도량인 전통사찰이 뇌물공유와 범죄처로 인식되게 하는 등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며 "불사의 참뜻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3편 남동우 기자

월성스님지음 | 336면 | 신국판 | 8000원 e-mail | ltbooks@hanmail.net 주소 | 대전 동구 중동 9-61번지 TEL | (042)221-8114, (02)747-2114 FAX | (042)255-7209

「행복한 삶을 가꾸는 출판사」
지웃는나무 LAUGHING TREE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월성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일상 생활의 우스개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의 일화와 비유를 동원하는 데 그것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통 사람들도 생각하는 듯하다.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뒤꽂이를 치는데, 그 충격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 정순전교수(문학평론가)

차례

1장. 그건 뉘소에게 물어봐

1. 뉘소의 뉘처럼 혼자서 가라
2. 뉘를 뉘아 버려라
3. 바보가 좋다
4. 미녀는 제관에서도 이긴다
5. 본색도유의 보물
6.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7. 남자들 것도 보고 싶다
8. 불길한 징조란 없다
9. 만약 부처님이 올래미라면?
10. 구름에 달 가듯 스처만 가라
11. 생각하지 마라, 미처 버린다
12. 행복하게 사는 법
13. 장자부터 죽여라
14. 말할 놈의 도
15. 싸움에 이기면 사랑을 잃는다
16. 여자가 최고!
17. 스님도 울어요?

2장. 그건 스님도 몰라

1. 아이고 스님! 더 어렵네요
2. 스님도 고기 먹나요?
3. 욕심쟁이 스님들
4. 욕쟁이 스님들
5. 좋은 사람이 아니다
6. 바로 말하면 뱀이라
7. 인간들 사는 꼴이구나
8. 알음알이
9. 말마 더럽다 더러워
10. 아야! 스님들 왜 이러나?
11.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12. 스님! 왜 출가했어요?
13.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14. 이상하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구나
15. 여인의 몸을 보고 싶다.
16. 일류 인간
17. 천과 악
18. 스님 걸치러 왔는데요

3장. 그건 빨간 새가 알아

1. 친구에게
2. 부처님! 저 스님 나빠요
3. 참회! 그 성스러운으로 가는 길
4. 독단부제의 시대
5. 진리는 현실 속에 있다
6. 무상은 속물들이 쓸 말도 아니다
7.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
8. 일체유심조가 뭐야?
9. 그대는 왜 부처가 아닌가요?
10. 지장보살은 지옥 갔다
11. 그러면 부처 아니네 뭐
12. 망상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13. 오솔밭 폐지 않으면 안 된다
14. 용과 뱀-성인과 범부
15. 늑대사자의 본성
16. 부처도 막지 못한 길
17. 포대화사의 보물보따리
18. 아인마(夜人馬)
19. 감사행의 비밀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전화 : (042)252-7208 · 팩스 : (042)255-7209 · 책은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